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월드뷰

WORLDVIEW

02

FEBRUARY · 2017

ISSN 2234-3865



불편한 이웃, 품기

COVER STORY

그리스도인의 지역사회 기여

_ 빔 리트게르크 Wim Rietkerk

COLUMN

약자와 윤리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선민주의

[세상보기] 질문의 강력한 힘

[열린읽기] 기독교세계관은 무례한가



SAMSUNG

세상 어디서든 쓸 수 있어야 진짜 노트북

스마트폰 배터리팩 충전
지문인식 기능으로
어디서든 더 자유롭게



인텔 인사이드®. 더 뛰어난 성능 아웃사이드



All day, All night, Always

삼성 노트북 9 Always



*제품의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배터리팩은 별매입니다.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코어 및 코어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해당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 및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com/sec)
*정격이 10 W(5 V/2 A) 이상이고 USB-C™ 또는 USB BC1.2를 지원하는 외장 전원장치(별매품)와 호환됩니다.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ephone 02-2183-2700

www.ins-lab.co.kr

Fax 02-2183-2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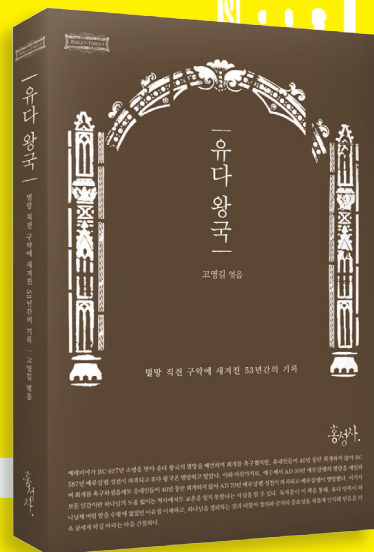
m.ins-lab.co.kr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은 왜 멸망했을까? 멸망의 나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 성경에 더 깊숙이 들어가 답을 찾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를
열왕기하, 역대기하,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시간순으로 정리!

고영길 엮음 | 바이블 인 타임즈 41A5변형 | 376면 | 15,000원



시간순으로 성경을 읽는 <바이블 인 타임즈> 시리즈

1 예수 전기

시간순으로 동시에 읽는 사복음서
고영길 엮음 | 352면

3 다윗 실록

구약의 기록들이 노래하는 다윗 일대기
고영길 엮음 | 312면

2 바울 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으로 그린 사도 바울
고영길 엮음 | 392면

4 유다 왕국

구약에 새겨진 유다 왕국 멸망의 기록
고영길 엮음 | 376면

5 예루살렘의 회복 (가제)

출간 예정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을 엮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직전의 시대상.

6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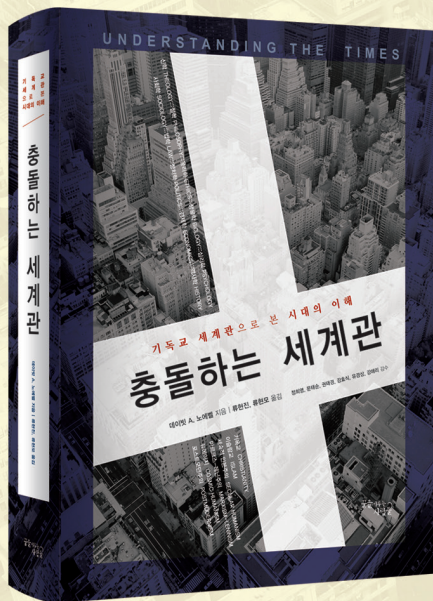
출간 예정, 시리즈 완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을 엮음.
예수님 승천 이후 주님의 제자 된 삶.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영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Summit Ministries》의 세계관 훈련 커리큘럼 한국어판
데이빗 A. 노에벨 지음 | 류현진, 류현모 옮김 | 정가 35,000원

세계관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면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과 대립하는 반성경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책은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를 비교하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성경에 기초한 통합적인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성인경 목사(라브리 공동체 대표간사)

주제	신학/철학/윤리학/생물학/심리학/사회학/법학/정치학/경제학/역사학
대표적 세계관	기독교/이슬람교/세속적 인본주의/뉴에이지/마르크스-레닌주의/포스트모던주의

교회, 대안학교, 홈스쿨 도서 상담 문의 02-529-7722 |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

DCTY BOOKS

꿈을 이루는 사람들

유·초·중·고등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부모의 존재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번째 국가이자 세상입니다.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번째 헌법이자 상식입니다.
교육은 사실상 부모에게서 시작되어 부모에게서 완성됩니다. 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말과 회초리로 자녀들을 가르쳤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모든 걸 배웠다 말합니다. 엄마가 너희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 학생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시험지에 답하지만,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SICA는 부모와 한 목소리 되고, 한 모습 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쳐도 부모가 아니라 하시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해도, 그럴 땐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아빠가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냥 책 속의 그럴싸한 주인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할 뿐입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성공한 아이들로 자라는 데 만족하지 않듯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저 성공한 어른으로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예배자로 자라도록 도우며 기도하듯이, SICA 스스로도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입학설명회
안내

일시 2017년 2월 15일(수) 오후4시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Contents

FEBRUARY · 2017



COVER STORY

커버스토리

그리스도인의 지역사회 기여 | 빔 리트게르크 07

SPECIAL

대표주간

약자와 윤리 | 손봉호 16

기획칼럼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 빔 리트게르크 19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선민(選民)주의 | 김태환 24

청년, 따스한 지역사회 만들기 | 신정현 28

COLUMN

세상보기

질문의 강력한 힘 | 이정일 33

열린왕기

기독교세계관은 무례한가 | 이춘성 25

문고 답하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 김현수 42

CULTURE

팬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다른 견해와 함께 식탁에 앉는 '법' 58

손봉호의 유머 모음

처음부터 돈을 냈더라면... | 손봉호 44



WORLD VIEW

2017년 2월호 | WORLDVIEW | 통권 200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 VIEW



CONTENTS

그땐 그랬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
BE+LIVE+R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 두 번째 양희송, 이강일	46
루터의 도시를 가다 #12	
예나 추태화	28

BOOK REVIEW

새책읽기	
G.K. 체스터턴의 정통 장윤석	62
위로 장정열	63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박명호	64

NEWS

회원기고	60
사무국 소식	68
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68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사진 신효영 | 교정 김선경 | 일러스트레이터 김미수 | 디자인 · 인쇄 디자인집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이메일 m.worldview.or.kr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실무진	나동훈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장,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나동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그리스도인의 지역사회 기여

Wim Rietkerk

빔 리트케르크

인터뷰어/통,번역 성기진 사진 성의진

빔 리트케르크(Wim Rietkerk)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라브리공동체 대표이며 20여 년간 국제라브리 회장을 역임했다. 목사이자 위트레흐트 시의 원으로 활동하며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심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 공로로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Q. 위트레흐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트레흐트(Utrecht)는 주후 1세기 로마 요새로 시작되었고, 중세 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지금은 인구 30만 명으로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지만, 라브리가 있는 구도심에는 대성당과 수도원 등 예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라브리는 위트레흐트의 도시 지부와 에켄빌의 합숙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Q.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3년 전이었다. 어느 수양회에서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개혁주의 정당인

기독교연합당(CU)이 차지하고 있던 시의회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한 번 도전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날 내가 강의했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7절이었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후 6년간(공석의 잔여임기 2년, 재선 4년) 시의원으로 봉사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_렘 29:5~7

Q.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구체적으

로 어떤 뜻인가?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그네의 처지가 되어서도 그들이 머무는 성읍의 평안(shalom)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포로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 베드로전서 1장을 비롯하여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세속적인 나라일지라도 지역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나는 샬롬이라는 말을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도시의 녹지화와 공해 절감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노숙자와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최하층민을 돕는 것으로 이해한다. 번영이란 도시의 재정을 책임감있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직한 행실과 형평성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한다. 15억 유로(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책임진 45명의 시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Q. 시의원이 되어 맨 처음한 일은 무엇인가?

라브리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예수상이 있는데, 언젠가 왼손의 손가락이 떨어져나갔다. 이 손가락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Q. 어떤 계기로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는가?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도시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내 그레타는 독일인이다.) 2차 대전 당시 위트레흐트에 살던 1,400여명의 유대인이 나치에게 끌려갔고, 심지어 마흔여덟 명의 고아원 아이들까지 하루 아침에 가스실에 보내졌는데 다른 시민들은 그들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구가 크게 성장한 지금도 위트레흐트의 유대인은 300여명에 그치고,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추모비가 없었다. 악을 방관한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외면이 우리 지역 전체에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과 사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추모비를 소개를 한다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끌려간 기차역은 이제 철도 박물관이 되었다. 그 앞의 광장에 있는 못생긴 담벼락을 헐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14장의 돌판을 세웠다. 돌판에는 나치에게 죽임을 당한 1,2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와 장소를 새겼고, 더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면 지금도 종종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며,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끌려간 1,400여명 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유대인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돌판 중앙에는 다윗의 별과 함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네덜란드어와 히브리어로 새겼고, 그 앞에는 한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빨나팔 모양의 조형물을 세웠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빨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이면서 희년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이기도 했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샬롬 즉 관계의 회

복이라는 희망을 주는 상징이다. 추모비가 있는 자리는 유대인들이 줄지어 끌려간 길목이고, 이제는 철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줄지어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살림을 물려주고 싶었다.

Q. 건립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네덜란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는데 한두 가지 이견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를 분리하여 다루는 전통이 있다. 지난 70년간 위트레흐트에 유대인 추모비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파악한 뒤, 시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과 시장을 미리 설득해 두었으며,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며칠간 의견을 들은 덕분에 건립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재정이었다. 총 20만 유로(약 2억 6천만 원)가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채워야 할 판이었다. 재정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시장과 다른 의원들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나밖에 모른다.

Q.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였나?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브리 사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추모비 건립이라는 공적인 사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었다.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다니엘 5장의 사건을 기억하라!
어느 쪽이 옳은지는
글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문맥을 이해해야하고
그 문맥을 읽어내는 힘이
바로 세계관이다.



돈을 보냈고, 철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철도청에서도 미화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 돌판을 옮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마침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의 기록을 연구하던 사람이 네덜란드 철도청에서 독일 정부에 유대인 수송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나치에 협력했다는 지탄을 받게 된 철도청은 사죄의 의미로 위트레흐트의 유대인 추모비 건립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Q.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룰 때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니엘 5장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당시 문자는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은 모음을 어떻게 끼워 넣느냐에 따라 화폐의 단위로 읽을 수도 있었다. 왕의 지혜자들이 ‘천 원, 백 원, 십 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니엘은 벽의 글자를 보자마자 화폐의 단위(므나, 세겔, 베레스)가 아닌 ‘세다, 달아 보다, 나누다’라는 뜻으로 읽었다. 어느 쪽이 옳은지 글자만 보아서 알 수 없다. 문맥을 이해해야 올바른 모음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이다. 은과 금의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은 돈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논리로 가득 찬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현안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안목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돈 문제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슈들은 사실 하나님을 잊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증상일 뿐



이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굳건한 목표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살롬, 즉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다. 왜 하나님은 멸망하기 직전의 바벨론, 죽기 직전의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써서 보여 주셨겠는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를 구원하고자 했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도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이 경고를 귀담아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Q.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을 해야 하는가?

2차 대전 종결 후 독일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에서도 나치와 협조했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에 대한 규탄과 이들의 조건 없는 사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도 국왕과 총리가 자주 방문하여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300~400년 전 노예 무역에 종사한 선원의 후손들이 노예의 후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열렸다.

위트레흐트에서 유대인 추모비 건립까지 70년이나 걸린 것이 보여 주듯이, 정부에서 항상 앞장서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작게나마 화해와 기도를 시작한



경제 논리로 가득찬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현안을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같은 안목과 용기로 봐야 한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굳건한 목표를
세상에 선포하여
진정한 살롬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다.



다면 사회 곳곳에 회복의 섬들이 나타날 것이다.

Q.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사과했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최근에도 사과를 조건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위트레흐트에서도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외면과 차별에 대해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달라는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유럽에는 기독교 전통과 가치관이 남아 있었기에 독일이 전쟁 후 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통이 없는 일본이 진

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사과를 조건으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사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태도이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원한과 적개심의 감옥에 갇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용서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평생 지은 죄들을 일일이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진심 어린 사과는 요구한다고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의 회복, 살롬을 이룰 수 있다. 일본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앞서 말한 네덜란드 선원의 후손들과 노예의 후손들처럼 용서를 통해 작게나마 회복의 섬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희망을 얻는다. 새 예루살렘의 강가에 드리운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주위의 깨어진 관계들을 조금씩이나마 회복시키고, 돈과 자연의 청지기 노릇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세상의 경제논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브리공동체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995년 사역 논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노트북에 프로젝터를 띄우지만,
언젠가는 OPT란 기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보다 이전엔 전지에 모두가 둘러앉아 손수 적었더랬습니다.

제11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도 그랬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닥에 전지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서
유리컵으로 네 귀통이를 고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서모임이 학회로, 그리고 이제는 사단법인이란 어엿한 조직으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자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ORLDVIEW

SPECIAL

너희는 악행에 항거하고 덕행을 닦아라.
올바른 희망에 마음을 들어 올려라.
너희는 모든 것을 투사하는 재판관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투사하는 재판관 앞에서 너희들은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행운에 만족하지 말라.
_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

그 어느 때보다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오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는 무엇이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인 우리에게
문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은
이 세상의 불편한 한 쪽,
약자가 맞습니까?

악자와 윤리

손봉호 (대표주간)



이 세상에 고통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 고통이 심각하다 하기보다는 “심각”이란 말의 뜻이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식된다 해야 할 것이다. 고통은 쾌락과 함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다. 다른 어떤 경험으로도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옴의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지 고통 문제의 대답은 아니다.

고통과 관계해서 인간이 우선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예방하고, 줄이고 극복하는 것이다. 고통이란 현상 자체가 이미 그런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며 당위(當爲)라 할 수 있다. 사실 인류문화는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과 그 결과의 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면 농업이 없었을 것이고 아프지 않으면 의학과 의료기술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가뭄, 홍수, 폭풍, 맹수, 맹독, 질병 등 자연현상이 사람을 괴롭혔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는 기술, 과학, 과학기술을 개발했고, 상당할 정도로 성공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연 대신 인간과 인간 사회가 인간을 아프게 한다. 루이스(C. S. Lewis)는 인간의 고통 4/5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이 가하는 고통은 자연이 가하는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잔인하다. 근대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1931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였는데, 40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서 독일 나치정권은 유대인 600만 명을 재판도 없이 살해했고, 1,2차 세계 대전에서 20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나치 군인들은 유대인 유아를 축구공으로 사용했다 한다. 자연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인간이 가하는 고통은 거의 대부분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한다. 개인의 악도 심각하지만 집단의 악은 훨씬 더 심하다. 미국 신학자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은 양심, 합리성, 체면, 위선 등의 도덕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도덕적이 될 수 있으나 사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즉 집단이기주의가 개인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고통은 거의 대부분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삶에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강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 복수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한 사회의 윤리나 법질서가 파괴되면 약자들이 주로 그리고 먼저 그 피해자가 된다. 교통질서가 무너지면 탕크나 덤프트럭 기사는 마음대로 달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다른 차들이 다 비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행자나 자전거, 손수레 등은 아예 길에 나갈 수도 없다. 부패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부패하면 강한 사람은 뇌물 등으로 더 강해질 수 있으나 약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세계은행은 부패란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이라 했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호브스(Thomas Hobbes)는 약육강식(“사람이 사람에게 늑대”- Homo homini lupus)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의 기본 목적은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정의의 핵심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되기 때문에 윤리의 궁극적 목적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는 고통은 거의 대부분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윤리나 법질서가 파괴되면
가장 먼저 약자가 피해자가 된다.
정의의 핵심은
강자의 횡포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윤리의 궁극적 목적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사람이 자신의 게으름이나 무능으로 약자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약자가 생겨난다. 강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능력이나 부지런함도 작용하지만 사회의 제도와 시대적 상황 덕으로 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양복 재단사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도태되고, 싱거운 말 잘하는 사람이 개그맨이 되어 떼돈을 번다. 그러므로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회, 특히 강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공정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이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이스라엘 주민 사이에 끼어 사는 이방인)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다. 고신대 전 총장(故)이근삼 박사는 기독교적 정의를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란 말로 표현하였다. 정치

기독교적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부패를 막아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아가페 사랑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도를 반영하여
이웃의 이익을 위해 절제해야한다

철학자 로울즈(John Rawls)는 그의 『정의 이론』(A Theory of Justice)에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the greatest benefits to the least advantaged)이다. 즉 약자보호가 정의란 것이다.

에로스에 근거한 세속적 윤리는 행위자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동기에 근거하여 덕 있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아가페에 근거한 성경의 윤리는 행위자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에 초점을 모은다. 십계명의 윤리적 계명이라 할 수 있는 4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모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이웃은 우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비도덕적 행위의 제일 큰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

어하지(벧전 2:11) 않고는 윤리적이 될 수 없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골 3:5, 엡 5:5)라 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은 탐심을 제어해야 한다. 독일 신학자 그룬드만(W. Grundmann)은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신의 인품을 고상하게 기르기 위함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절제며 십자가의 도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건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폭로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부패를 막아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자신들부터 절제해야 한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European Refugee Problem

빔 리트케르크 Wim Rietkerk | 번역 성기진



최근 유럽으로 몰려든 중동의 난민들과 이들이 촉발한 정치적 논쟁은 근대 유럽 문명을 지탱해 온 인본주의적 계몽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유럽인들이 기독교적 뿌리를 되찾고 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만 지금의 난관을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팩트

유럽에 대규모로 난민이 몰려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헝가리와 벨기에 사람들이 난민 신세였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유대인, 직후에는 독일인들이 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를 떠돌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혁명과

현재 난민의 위기가
과연 경제적인 문제 뿐일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전의 난민과 현재의 난민의 큰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이며,
이 세계관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이다.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은 그 규모와 시점이 예전과는 다르다.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하자면, 2011년 이후 중동에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은 6530만 명에 달하고, 그중 1610만 명이 유럽으로 도피했다.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100만여 명, 네덜란드에 88,536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2016년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독일에 70만여 명, 네덜란드에 5만여 명이 도착했다.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 중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졌다. 대부분의 난민은 아랍 세계, 특히 시리아에서 오지만, 에리트리아, 수단, 말리 등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도 많다.

난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걸어서 발칸 반도를 통과하거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EU의 여러 회

원국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난민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일부 받아들일기를 원하며,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내부적인 반발이 심하다.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마리 르펜¹⁾이나 게르트 빌더스²⁾와 같은 정치인들은 이런 감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자기들의 정책에 지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한다.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재앙은 어째서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명백한 원인은 독재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부시가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이 지역에 권력과 리더십의 공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근동의 많은 지역이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자면, 식민지 시대 말기에 서유럽 국가들이 근동을 제멋대로 갈라먹은 것도 원인이다. 이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서양에 대한 증오심은 IS와 지하드 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이들의 폭력성은 더 많은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기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은 현재의 난민 위기를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독일에 도착한 난민 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6만 유로의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은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헝가리의 총리는 난민들을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1. 프랑스의 보수 성향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전선(FN)의 대표
2. 네덜란드의 보수 성향 정당인 자유당(PVV)의 대표

판단하고 국경 폐쇄를 단행했다. 20세기에 유럽이 겪었던 몇 차례의 난민 사태와 달리, 아랍에서 찾아오는 난민들은 유럽의 기본적인 기독교적-인본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의 난민들과 현재의 난민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이며, 그러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이다. 미국의 철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1994년 <문명의 충돌>에서 예견한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 시민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여성의 지위, 종교의 자유, 동성애에 대한 시각 등 모두 도덕적인 이슈들이다.

우파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감에 편승하여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뿐 아니라 이슬람 자체에 대한 공포를 부추긴다. 이를테면,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0세 이하 세대의 10%가 이슬람 배경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네덜란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양성평등,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와 같은 네덜란드의 가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유럽이라는 집을 받치고 있는 일곱 기둥³⁾을 인정할 것인가? 이민자들이 우리의 집과 직업을 빼앗아 가면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해지기밖에 더 하겠는가? 유럽이 “유라비아”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현재 유럽의 위기는 이런 문화적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제 위기의 그림자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이것 때문에 EU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브렉시트!)

3. 유럽의 일곱 기둥

- | | |
|-------------------------|--------------|
| 1) 직선적 시간 개념에 바탕을 둔 역사관 | |
| 2) 인간 소명의 중요성 | 3) 노동의 구원 |
| 4) 인간의 존엄성 | 5) 중재하는 구조들 |
| 6) 도덕적 질서 | 7) 정치사회적 가치관 |

“압력이 가해지자 약점이 드러났다.”
 훌륭한 기술과 튼튼한 경제가
 그들의 가치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그 가치관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난민들과 맞닥뜨린 유럽이 처한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말했듯이 “Wir schaffen das” — 유럽은 난민 사태의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질문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포퓰리즘에 편승한 지도자들이라도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족주의(new nationalism)의 확산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프란시스 쉐퍼는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저서와 영화에서 유럽이 처한 문제의 근원을 알려 준다. 쉐퍼는 고대 로마 문명을 이야기하다가 로마 시대에 지어진 다리를 가리키면서 “압력이 가해지자 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유럽 연합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에도 이와 같은 약점이 있다. 유럽은 훌륭한 기술과 튼튼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유럽인들의 가치관에도 큰 문제



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가치관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이다.

지금의 유럽은 남자와 여자, 가족, 과거와 미래, 신(神)과 운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문화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최근의 난민 사태는 유럽의 가면을 벗겨 버린 것이다. 유럽을 과연 기독교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위기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한 가치관만 남은 유럽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뿌리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해의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16:9)고 외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이 환상은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 되었다.

요즘 필자는 이 환상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 유럽 문명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세워지고 성장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이 없는 유럽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위기의 본질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난민 사태는 유럽의 기초에 깊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하고 묻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된 세

계관에 바탕을 둔 가치들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진리를 잃어버린 유럽의 기초에는 금이 가 있다. 오늘날의 경험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한 문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초월성(Transcendence)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숭배 행위가 있다. 무엇을 숭배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빌론 제국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들은 은과 금, 동과 철, 나무와 돌의 신들을 숭배했으나 정작 자기들의 호흡과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5:23). 그들의 숭배 대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자 바빌론 제국도 삽시간에 붕괴되었다. 그리스와 로마도 다르지 않았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유럽의 문화도 초월성과 신성(The Divine)을 상실하고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이끌려 바울이 지적했듯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라고만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난민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난민들의 물결은 기독교 세계관을 잃어버린 유럽 문명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다.

난민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난민 사태를 빙자하여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힘을 얻는 것이다.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문제는 유럽의 청년들이 이러한 극단주의에 현혹되어 지난 세기의 전쟁과 학살을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뜻밖의 선물

유럽에 밀려든 난민들의 물결은 경제적인 문제와 도

덕적 딜레마를 일으키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이 대변하는 심각한 위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다. 고국과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수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자, 놀랄 만큼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독일에 100만 명의 난민이 몰려든 한 해에 무려 3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동네 교회에도 70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새신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를 찾아간 어떤 선교사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어 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뽁뽁 닫혀 있만 했던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 덕분에 이 강의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칠 용기를 얻는다. 혹시 하나님은 유럽을 기독교적 뿌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난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는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은 지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모든 민족은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브리공동체와 함께 실시한 <기독교세계관학교>의 “나그네, 우리의 불편한 이웃”의 패넌강의 자료 중 하나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선민(選民)주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



트럼프가 바라보는 젓과 꼴이 흐르는 땅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2016년 ‘으뜸 패’(trump)를 쟁취했다. ‘승리했다’(trumped). 미국 제45대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전무후무할만한 저급한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윤리적 파문을 노출시켰다. 당선 직후에는 바로 그동안 과격했던 언행과 정책 노선을 일부 완화시키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임

중에도 파급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새로운 고립주의가 실제로 국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대중선동의 전술적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는 지켜볼 관심거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선민(選民)주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다. 자기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선민주의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약속의 실현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덕분에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배타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자칫 현대판 선민주의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는 선거유세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하고,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한미무역협정(KORUS)을 재협상 또는 파기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약 45% 부과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는 현지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이도록 하거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대립적인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외교적 철칙으로 삼는 중국의 허점을 찌르면서 중국과 심리 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실현 여부를 떠나 이러한 생각의 중심축은 배타적 국가 이기주의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자기중심주의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의 울타리를 높게 세워서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한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후보의 애국심과 국가 경영철학에 동의하여 그를 지지한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트럼프에게서 “위대한 미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선민주의의 함정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 듣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기대감을 갖게 된다. 미국 국민들은 200년의 역사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건설했으니 과연 ‘위대함’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위대함’의 우월주의에 몰입될 수도 있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은연중에 다른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대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미국”을 이룩하면, 미국만이 절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게 되거나 적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나 사후적으로 누리는 과정에서 자칫 자충수에 빠질 수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투자에서 막연한 기대감은 확실한 실망감을 가져오듯이 막연한 특권의식은 확실한 배척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는 범접할 수 없는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스라엘 민족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사회문화적 특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총체적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고서도 직무유기에 함몰되었다. 특혜를 다른 민족에게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고(또는 못하고) 특권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선민주의이고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의 불씨도 선민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이 선민주의에 배타성을 앞세우는 한, 세계에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위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분쟁의 골은 깊어진다. 선민주의가 목적이 되고 군림의 사상이 된다면 선민의 주체인 하나님의 창조지외와는 배치된다. 선민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지지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어 더 불어 살아가는 세계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의 우월주의’에 몰입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오만한 국가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만을 위해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이웃 나라와 먼 나라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지라도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불신과 모멸과 배척의 적대감을 강요할 수도 있다. 환율 조작국의 지정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강제로 일본과 독일의 화폐가치를 절상시켰으며(미국 달러의 약화), 1995년에는 G7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반대로 일본 엔화의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높였다. 말하자면 정책 합의라는 명분 아래 환율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환율을 국제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여 전 세계에 유통시키면서 화폐 표시 금액과 제조비용의 차이로 막대한 이익(세노리지, seigniorage)을 얻는다. 만일 1달러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이 평균 30센트라면 미국 정부는 아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서도 고스란히 70센트의 순수익을 얻는다. 100달러 지폐를 제작하면서 만일 평균 40센트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낡은 지폐의 회수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유통 기간이 10년이라면 이자율(1%로 가정)만큼의 수익에서 제조비용을 뺀 순수익은 9달러 60센트이다. 뿐만 아니라 회수비용이 발생하기까지 99달러 60센트를 활용(투자)하여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순수익의 규모는 단순 계산한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까지 마치 이타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 왔다는 인식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체제와 총체적 세계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위대한 미국에 대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도의 협상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미국 우선주의를 거래하려는

트럼프는 탁월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발한 감각으로 협상과 타협과 거래를 추진할 것이다. 최소한 상호이익의 호혜적인 협상 원칙을 지킨다면 세계경제에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TPP 대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감세 조치를 취하고 해외 진출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이민자 수를 줄여서 내국인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방위비 부담금을 절감하여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일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세계경제는 이혜타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돌아갈 것이다. 거래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래서 거래는 공정해야 하고 장단기를 모두 고려해야 하고 영역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일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필요도 없다. 다만 트럼프가 공언한 바대로 거래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그룹이 상업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얼마든지 가격 흥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를 거래하려면 가격보다 신뢰와 설득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 간 경제 및 통상 협상에서는 상호이익의 명분과 실리가 설득력을 가지는데 트럼프는 상대방과 이익을 공유할 생각이 없는 듯이 발언해 왔다.

선민을 넘어 시민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선민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조국'을 외칠 때 배타주의가 근간이 된다면 선민주의와 마찬가지로의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조하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증오한 히틀러가 1923년 11월 강대한 독일을 주

창하면서 배타적인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뮌헨 봉기에 실패하여 투옥된 이후 불과 10년 만에 수상과 총통이 되어 유럽을 지배하도록 독일 국민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동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세력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사람들은 충동질을 당한 일반 군중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소수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에게 열려있다. 소수 지도자가 왜곡된 선민주의에 기대어 다수 국민들에게 충동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기선언과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민의식은 기득권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하고 시민의식은 존재감과 권리를 만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 이후에도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이 바로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경제사(史)적 관점에서, 사유재산제가 대두되었고 자본과 임노동을 분리한 자본주의적 생산 수단과 방식이 정착되기에는 산업혁명의 거대한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2014년과 2015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은 각각 2.3%와 2.1%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1.1%와 1.7%(독일은 3.0%와 1.2%, 영국은 1.2%와 1.4%), 유로존 국가들은 0.9%와 1.4%, OECD 회원국들은 1.1%와 1.3%, 일본은 0.4%와 0.8%, 나아가 1인당 국민소득이 12,476달러(2015년 기준) 이상의 고소득 국가 전체의 경우에도 2개 연도 모두 1.3%였던 양상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현재 상태가 가장 양호한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대중적 인기를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다시 꿈틀거리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

신이 어떻게 겨자씨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선불리 “We are the world!”만을 외쳐서도 안 되겠지만 민족과 국가의 울타리로 햇볕과 바람의 흐름을 막아서도 안 된다. 울타리 바깥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겠지만 울타리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안의 동식물은 호흡을 멈추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탄력성과 흐름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세계경제가 과잉 공급 체제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온갖 마케팅 수단을 다 동원해도 상품과 서비스가 팔리는 속도보다 생산해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 세계은행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2.7%와 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18.8%가 하루 1.9달러(2011년 구매력 기준) 이하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극빈층에 속해 있다. 세계 전체로는 약 12억명에 이른다. 가난한 자들의 자생적 삶의 몸부림과 더불어 부자들의 더불어 삶의 몸부림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트럼프 방식의 울타리를 치기 보다는 바람이 매서울 때는 바깥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고 햇볕이 따사로우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 함께 땅을 일굴 수 있는 넘나드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통로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글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한국EU학회 회장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청년, 따스한 지역사회 만들기

- 사람공동체 리드미 :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공감하다 -

신정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청년운동가)



직업도, 철학도, 생각도, 꿈도 전부 다른 스물다섯명의 공동체!

저희 리드미는 기자, 디자이너, 사회복지사, 대학생, 공무원, 홍보전문가, 기획자, 활동가 등등 전혀 다른 직업의 청년들이 모여 현재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 휴식, 평화, 언론, 교육, 농사, 재미를 위해, 또는 심심해서 등 모이는 이유도 전부 서로 다릅니다. 개개인의 개성과 철학, 각자의 생계와 생활을

최우선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드미 안의 모든 프로젝트는 참여 및 활동을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목적과 꿈을 목표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꿈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각종 프로젝트는 해보고자 하는 인원들끼리 별도의 분체(내부의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는 강요, 강제, 조연 등이 없고 옳고 그름을 구

분하지 않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와 소통 구조

회의에 참석한 전원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며 매 프로젝트는 해당 사업의 본질과 본래의 취지를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멤버들이 상시로 퍼실레이터, 리더, 팔로워의 역할을 바꿔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학습 공유 기능 (SNS를 주로 활용)

세미나, 학술, 탐방, 연구, 독서, 회의, 전시, 여행, 업무 등 다양한 경험과 공부의 결과를 SNS(카톡,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 및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단체 카톡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문, 철학, 사회, 예술, 환경,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치우침이 없는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청년공동체를 표방

완성된 플랫폼과 기획,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만들기 보다는 (특히 지역에서) 처음 해 보는 일들을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고 절차와 결과를 내외부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마을공동체

“그 많은 고양시 청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희는 이 질문에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발견해 가는 마을공동체입니다. 청년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고양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8명의 멤버들이 한 명씩 행사 참여를 추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재미를 알리면서 마을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마을공

동체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우리는 궁금하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중 부끄럽거나,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놓았더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자체로 크게 공감하고 힐링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주 쓰는 단어와 일들이 이해되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리드미의 주요활동인 사람도 서관의 시작이었습니다.

100만 시민의 100만 권의 사람책을 꿈꾼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리드미는 점차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100만 시민이 100만 권의 사람책이 되는 날을 꿈꾸며 오직 ‘사람’이 목적인 사람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사람공동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빠르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드미는 청년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었습니다. 개개인이 이루고자 했던 꿈, 그러나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되고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작은 변화가 모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도서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수십 명의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았던 상대방과 대화와 공감의 과정을 거치며 공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꿈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도서관 리드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책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발견하게 되었고, 독자는 그 꿈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로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작은 도서관, 중고등학교에 16회째 사람책도서관 행사를 진행하여 마을 거점 기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렛츠컨퍼런스 (재능나눔장터)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

소소한 재능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쓸모가 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각기 재능을 가진 청년들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재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재능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림 :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주인되는 inner drawing

미디어교육 : 지역주민들이 좀 더 쉽게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게 스킬 전수 (인터뷰, 촬영, 녹음)

드론날리기 : 최근 트렌드인 드론 운용법과 촬영법 등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강좌

소규모 목공교실 : 하나밖에 없는 나무 볼펜, 펜던트, 목빗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소한 잡화목공 교육

인문학 나눔 : 책 나눔, 동서양 철학, 고전 수업 진행

건강강좌, 동안강좌 : 공간 지상에 설계된 가정의학 및 의사와 연계하여 주민 건강 교육 강좌 실시

꿈의학교 비밀기지

“마을형, 오빠가 마을동생을 챙기는 꿈,
대안학교를 세워 보자!”

공공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두가 교사이자 학습자가 되어 동등하게 배워 나가는 학교.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동네의 형언니오빠들이 모여 이 꿈을 현실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인 도전은 두 달이라는 기간에 마을 내 성공적인 대안학교의 모델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근원에는 ‘동네’라는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유공간 ‘지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왜 없을까? 이 질문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다양한 청년공간 및 공유공간을 탐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거점이 없이 활동하는 청년 마을 활동가가 마을살이를 꾸며며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 지원, 전문가 연결, 홍보 및 네트워크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네트워크 구성, 신규 사업기획, 프로젝트 등을 연계 및 진행하는 전초기지로서 ‘지하’를 통해 이주민 위주의 파편화된 마을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등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꿈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청년들의 꿈을 위해 공간을 내어 주신 마을주민의 배려와 공간조성사업 보조금이라는 시민들의 보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개관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도전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언론 ‘라도미(Radio Me)’

대안 언론사를 세우려는 꿈을 가진 청년의 제안이 ‘라도미’라는 마을언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은 물론 청소년과 중년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언론학교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새참 (청년농부, 텃밭 가꾸기)

“한 평의 땅에서 4명 가족이 먹을 채소가 나온대!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도시농부의 꿈은 고양도시농부네트워크(농부,작가 연계 공동체)와 협업하여 현재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청년새참의 농장으로 청년, 청소년들이 각자 삶의 주인되는 친환경 농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26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교육을 위한 청년농부학교를 세워 청년농사꾼의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청년생태계를 상상하다”

리드미는 제도 밖에 위치한 계층을 얼마나 제도 내에 포섭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좋은 공동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청년 당사자의 입장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청년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 청년단체, 청년개인들과 함께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라는 모임을 만들어 청년들이 고양시라는 공간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월에 이르는 3개월동안 310여 명의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자 등 고양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들을 만나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양청년들의 삶의 실태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고양시의 건강한 청년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리드미의 지향점은 ‘사람’ & ‘공동체’

마을공동체는 지향점을 잃은 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청년공동체 리드미는 지난 2년 이상의 활동을 통해 28명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마을공동체를 경험했다고 자평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첫째로 각자가 가진 꿈과 개성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실현시키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총동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사람도서관). 둘째로,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개개인이 가진 소소한 재능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다양한 재능이 존중받는 과정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

게 확립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꿈의 학교, 랩츠컨퍼런스). 끝으로 청년들에게 실험과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은 가진 게 없던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리드미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마치 문어발식 확장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거치며 형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사람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다보니 각자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철학, 종교, 직업, 나이, 정치 성향 등이 각기 다른 28명의 고양시 청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 모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애초에 확고한 목적을 갖고 출발했던 것도, 사업을 펼쳐가기 위한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사람공동체의 가치만으로 리드미의 존재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청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비리공동체와 함께 실시한 ‘기독교 세계관학교’의 강의 중 하나이다.



글 | 신정현

사람도서관 리드미(Read Me)관장으로 통일교육 민간단체 ‘통일드림’의 문화사업팀장이며 통일교육 전문강사이자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평화 공감 통일학교’ 대표이다.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및 고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질문의 강력한 힘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큰 배를 띄우려면 깊어져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종이배만 떠다닌다.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면, 한 가지 해석방법에 몰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숨긴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에, 어떤 이는 수첩에 의존하고, 어떤 이는 편법에 의지한다. 빌려온 지식으로 무장을 하지만, 생각의 질(質)이 자동적으로 높아지진 않기에, 미술관에서 작품 대신 설명서를 보느라 시간을 보낸다. 이런 비극적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무지(無知)란 우상에 맞서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은 제대로 생각하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사회가 병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한국사회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

가』란 책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불투명한’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삶이 힘든 것은 그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나 특검 속보를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열심히 노력했음수록 좌절감도 크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TV 뉴스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의 숨겨진 삶을 속보로 쏟아 낸다. 비선실세들의 위증과 후안무치를 보다 보면, 뉴스가 인간이란 광활한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을 실감한다. 탐욕과 권력이 여전히 많은 이의 삶을 지배한다. 문학은 뉴스가 보여 주는 어리석고 부조리한 인간의 모순을 서사로 풀어낸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가 겪는 ‘도덕성의 실패’는 바로 이런 착각의 결과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움이 높아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사치스러워 보이는 질문을 던지라.

“왜?”

갈수록 무지는 깊어진다. 묻지 않는 것은 죄이다.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이의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풍경이 된다.

톰 피터스(Tom Peters)는 경영학자이지만, 소설도 열심히 읽는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영학 서적들은 답을 제시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소설들은 ‘위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그것이 내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소설을 즐겨 읽는 이유이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소설들이 있다. 바오 닌(Bao Ninh)의 『전쟁의 슬픔』, 베트남 누엔(Viet Thanh Nguyen)의 『동조자』, 팀 오브라이언(Tim O'Brien)의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같은 소설을 읽게 되면 묻게 된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이었을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천 개의 찬란한 태

양』 같은 소설을 읽게 되면, ‘왜’ 라고 묻기 시작한다. 불공평한 세상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왜’(why)라는 말은 많은 이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를 용도폐기 시켰기 때문이다.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쁜 가장에게,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고 애쓰는 청년에게, ‘왜’란 질문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까마득히 잊고 산다. 도정일 교수는 이것을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사람은 살아야 하고 돈 벌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 버는가에 따라 인간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 이하가 되기도 한다 ... ‘인간 이하’를 거부하기 위한 질문 ... 이 근본적 질문을 폐기하는 사회는 ‘기본이 없는 사회’이다. 기본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위기의 사회가 아닌가?”

진짜 질문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운다

현명한 CEO가 원하는 전략은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아닐 것이다. 새로운 길을 뚫고 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제대로 된 명쾌한 질문 하나로 승부를 건다. 질문은 위기를 돌파하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경영의 성패는 CEO가 ‘어떤 질문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는가?’로 판가름 된다. 어떤 난제와 씨름해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낸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사소할 정도로 쉽다. 예수님은 낙담한 베드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내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여준다. 질문은 내가 지금의 이 모습, 이 역할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질문보다 오늘 채워야 할 실적이 더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질문은 매장에 진열된 인기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갖은 노력 끝에 정상에 올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라 목표였기 때문이다.

질문을 놓치지 말라, 혹은 질문으로 보이는 것을 놓치지 말라. 질문은 드물게, 생각보다 드물게 찾아온다. 명심할 점은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첫 단계를 놓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자신에게 나타나도 깨닫지 못한다. 질문은 종종 더럽고 떠맡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열 처녀 비유(마 25장)에서 ‘신랑’을 ‘질문’으로 바꿔보라. 열 명 중 다섯 명만 신랑을 만났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빌 윌슨(Bill Wilson)과 무하마드 유누스(Muhamad Yunus)의 이야기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

“1970년대 말, 젊은 전도사 빌 윌슨이 뉴욕 브루클린에 가게 되었다. 청년사역을 꿈꾸던 그에게, 친구는 브루클린을 다녀가라고 초청했다. 현지 상황은 생각보다 열악하고 위험했다. 떠나기 전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계단에 쪼그려 앉은 한 여자아이가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려고 커튼을 닫으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윌슨 전도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허기진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였다. 엄마는 밤늦게 돌아왔지만 고맙다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모습을 드러낸다.
종종 더럽고 떠맡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
대부분 모른 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결코 질문을 놓치지 말라.

는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떠나려고 보니 그 아이는 계단에 또 나와 앉아 있었다. 그 불편한 현실에 윌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윌슨은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 현실은 냉혹하고 잔인했다. 아사한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보면서,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절망했다. 경제학 교수였지만 가난이란 문제 앞에 무기력했다. 그 답을 찾고자 대학 근처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한 여인이 5타카(Taka)란 돈을 빌려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50포이샤(poisha)를 붙여서 판다. 이 50포이샤가 한국 돈 40원에 해당한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40원을 벌고 있었다.



단돈 40원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그 마을을 조사해보니 42명이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이 겨우 27달러였다. 겨우 27달러 때문에 42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가난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너무나 어이없어 망연자실하던 유누스는 자선이란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이 시작되었다.”

빌 월슨에게, 그의 인생을 바꾼 질문은 ‘배고프고 외로운 한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그 질문은 ‘5타카 50포이샤’란 돈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없지만, 이들이 던진 질문은 가난과 소외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고결한 순환을 시작하는 첫 발화점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들

처럼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다들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질문으로, 또 자신을 긴장시키는 질문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이 지금 절실하다. 이런 질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란 ‘꿈 너머 꿈’을 꿀 수 없다.

질문은 내가 무엇에 목마름가를 보여준다

질문은 바뀌 말하면 목마름이다. 질문은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따라 바뀐다. 월슨과 유누스는 제대로 된 답이 떠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했고, 결국 타인의 삶을 바꿀 답을 찾아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 답을 찾아낸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질문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 란 사실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나 한국 외교관들의 성추행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이것을 푸는 방법은 썩은 사과 몇 개를 따서 버리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소망이라고 한다. 소망을 준 이유는 거친 현실에서 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삶이 고달파지면, 자기 신념을 바꾸거나 침묵한다. 자기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중심을 다시 잡으려면, 어떤 경우든 타협하지 않는, 포기가 되지 않는 자신만의 신념을 재발견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땐,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문제는 삶에 도전을 준다. 웬지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저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분명 다르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하지만, 잘 사는 인생은 분명히 한끝이 다르다. 그 한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소신을 굽혀 일을 망치게 된다. 소신을 가지려면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은 그가 가진 질문으로 확인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위대한 삶을 산 크리스천이 적다. 대다수가 좋은 삶을 선택한 결과이다. 위대한 교회는 더욱 적다. 대다수가 좋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강 같고, 바다 같아서 그 위에 10만 톤, 20만 톤짜리 큰 배도 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 가시는 진짜 이야기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오늘 같은 혼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조금 늦었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자신의 삶에서 펼쳐내야 한다.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세상에는 우열의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는 누가 더 올바른 질문을 던졌나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이 일을 전문가의 몫으로 돌리지 않길 바란다. 전문가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는 최고의 일인자가 아니다. 그는 ‘질문의 끈을 놓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이길 바란다. 끈질기게 질문하여 평생 붙들고 살 질문을 찾길 바란다.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사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무례한가?

-기독교세계관과 시민교양-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기독교세계관이 이 땅에 소개된 지 수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한국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공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비판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1970년대에 북미에서 제기된 기독교세계관의 승리주의적인 경향성과 정치적 보수성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지난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는 특히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고, 교양 없는 집단으로 비춰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기독교세계관 운동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심사숙고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세계관의 선한 영향력 뒤에 남겨진 무례함의 그늘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독교세계관의 무용론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시민교양의 관계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 훈련 과정들 중 하나로 축소되어 있거나, 일부 엘리트 기독교인들의 전유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년 전에 대한 중요한 비판 서적 하나가 출판되었다. 종교사회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다. 헌터는 그의 책에서 북미 복음주의 권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활발히 진행되었던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결국 변혁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세계관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지금 읽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배덕만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관념론의 덫에 걸린 기독교세계관

여전히 기독교세계관이란 말을 모르는 교회나 기독교인

사실 세계관적 접근 속에 표현된 관념론은 이 옹호자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바로 그 이원론의 한 표현이다. 관념론은 문화의 제도적 본성을 무시하고 또 문화가 권력구조 안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을 간과함으로써 그런 이원론을 강화한다(헌터, 53쪽).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맹렬하게 공격했던 이원론의 문제가 세계관이란 용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지나친 낙관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낙관론 말이다. 우리는 종종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단지 생각이 충분히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강의, 독서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왔다. 기독교세계관이 생각과 행동을 단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원론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몸에 앞서며 생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생각이 행동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또 다른 이원론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통해 생각을 바꾼다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낙관론과 승리주의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세계관은 원래부터 낙관론과 승리주의를 지향했을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세계관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John Calvin)이 강조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비록 모든 피조세계는 타락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에 대해 19세기 후반에 화란의 총리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기독교를 '삶의 체계'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기독교를 '세계관'이라고 칭하였다. - 후에 카이퍼도 세계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 이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로서 기독교세계관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기독교세계관을 삶의 체계와 실천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이들로 하여금 지나친 낙관론과 승리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기독교세계관 아래서 다른 모든 사상과 행동을 규정하고 판단하며 바꾸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진 기독교세계관과 승리주의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독교세계관은 세계관이란 용어가 지닌 관념론에 충실해 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낙관론은 각 분야에 진출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밭 딛고 서 있는 각 영역에 기독교라는 딱지가 수놓아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각 영역의 주인으로서 비록 비기독교인이지만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스스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서 '세계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인의 바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한 관념이나 도그마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역동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구석 구석의 어둠을
들춰 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다. 바로 '전쟁'이란 말이다. 전쟁이란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나누고 철저히 상대를 무너뜨려 항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낙관론은 승리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대와 배려, 예의, 동역이란 단어는 전쟁과 승리의 반대 표현은 아닐지라도 승리를 꾸며 주는 단어들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전쟁과 승리를 수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증오와 배제, 혐오, 복수와 같은 단어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어울려 시민으로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하여 촛불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때도 있다. 학교에서는 비신자인 선생님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며,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선뜻 내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비신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들의 호의와 예의 바른 행동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기만으로 치부하고 불쾌해야 할까? 아니면 진심 어린 감사로 반응해야 할까?

기독교세계관의 제일 소명과 시민교양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자들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를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묻는다. 답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지옥의 땀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천대받던 이단이었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서 대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합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다. 간음하다 잡혀 온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을 요구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은 어느덧 모두 사라졌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은 기독교세계관은 죄와 싸워야 하며, 동시에 기독교세계관은 대중의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무례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철학자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위의 사건에 대해서 “폭력을 잠재우려면 그 폭력에 빛을 쏘아서 폭력의 진상을 밝혀주어야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80쪽). 지라르의 통찰은 특히 기독교세계관의 역할과 이를 실천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하도록 만들어 준다. 기독교세계관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싸우는 이유는 승리하



지금 읽기

『무례한 기독교』

리처드 마우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14.

기워해서가 아니라 죄와 폭력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11절에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은 순교자들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답하신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 아래서 기독교세계관은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와 폭력과 야만성, 어둠을 충분히 드러내는 빛의 역할이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악의 잔악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빛의 역할이야말로 기독교세계관의 일차적인 소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며 돌봄과 환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세계관이 낙관적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한 ‘우리’라는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무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세계관을 무례하게 하고 시민교양이 결핍된 기독교인을 만드는 승리주의적 기독교세계관의 왜곡된 모습이다.

끝으로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히 관념적인 사상 체계이거나 도그마(Dogma)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역동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구석구석의 어둠을 들춰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인 학자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는 따뜻한 학문을,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정치철, 기독교인 노동자들은 맘을 귀하게 여기는 소명이 회복된 노동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속 시민사회 속에서 천국 시민교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고, 승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드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본연의 기독교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글 | 이춘성 목사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2

예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는 1521년 겨울 독
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하
였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감힌 듯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 번역에 몰두하였다.
다음 해인 1522년 3월 1
일 신약 성경 번역을 마
쳤고, 9월 첫 번째 독일
어 신약 성경이 출간되었
다. 9월에 발간되었다고
하여 “9월 판 성경”이라

불리기도 하며, 두 번째로 12월에 출간된 성경은 “12월 판 성경”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여러 도시들
을 여행하며 루터는 수많은 논쟁을 벌였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의 개혁 사상은 정립이 되어 갔다.
1520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루터의 개혁적 저술들은 1524년에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예
를 들면 “교회와 사제 초방권” “예배의 순서” “세속 권세와 순종” “유대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선지자 거부권” “매매 행위와 이자에 관하여” 등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미망(迷妄)에 빠
진 신앙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

루터는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변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설교, 교육, 논쟁을 펼쳤는
데, 그 가운데 방문한 도시가 예나(Jena)였다.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예나를 11번 정도 방문한 것으
로 알려졌다. 시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 복음에 뿌리내린 믿음이 무엇인지 선포하였다. 이 도시에서
루터는 그의 지지자였던 카를슈타트(Andreas Bodenstein aus Karlstadt)와 성찬에 관하여 논쟁
을 벌였다.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종교개혁가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논지를 고수했고 이 때문
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루터는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주장한 반면, 카를슈타트는 성찬식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의 죽음에 대한 증거라고 이해하였다. 루터는 죄 용서는 한 번에 이뤄지
지만 그럼에도 성찬은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는 성찬을 주님의 실재로 이해하는 화체설에
가까웠고, 카를슈타트는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하려 했다. 이런 차이로 둘은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
었고, 1525년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쾰리까지 이 논쟁에 가세하여 루터를 무신론자 또는 무례한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
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처음부터...

어떤 도둑이 고추를 훔치다가 들켰다.

원님은 도둑에게

매운 고추 100개를 먹든지, 매를 100대 맞든지, 돈 100냥을 벌금으로 내든지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했다.

돈은 아깝고 매는 아플 것 같아 고추는 먹는 것이니 그걸 택했다.

그러나 고추를 스무 개 쯤 먹고 나니 입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다.

차라리 매를 맞겠다 했다.

스무 대쯤 맞고 나니 너무 아파서 살아 남을 것 같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돈 100냥을 내고 풀려 나왔다.

처음부터 돈을 냈더라면...

교훈:

최근 여러 유명인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다.

잘못했으면 제일 강한 벌을 택하라.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BE+LIVE+R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 두 번째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SPEAKER : 양희승 (청어람ARMC 대표),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임원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타 기관의 두 단체장을 통해 이 시대를 면면히 살피고, 지금까지의 세계관동역회의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사역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호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이강일 소장의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어람ARMC 양희승 대표의 “기독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를 담았다.

[1월호] 이강일 _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와 추이

[2월호] 양희승 _ 기독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

[3월호] 대담, 묻고 답하다

양희승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이하 세계관동역회)에 대해 국외자의 입장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인상비평 수준에 그칠 수도 있

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 경험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저의 문제 의식을 나눔으로 세계관동역회의 안팎의 방향을 설정하는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계관동역회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부터 세계관 운동을 추구해 왔던 주요 단체들이 결합된 조직으로 명실상부하게 규모나 전통에 있어서 충분

히 대표성을 가질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안팎에서 서로 다른 평가나 제안, 전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계관 운동의 역사와 관련하여 시기 구분을 한다면, 70년대부터 프란시스 쉼퍼의 책이나 칼빈주의를 통해 이미 세계관을 접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80년대 들어 IVF(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본격적인 세계관 관련 서적이 출판되면서 개별 연구모임과 선교단체의 수준을 넘는 대중적 확산이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 졌다 봅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을 필수교양처럼 접하다가 90년대 중반쯤이 흐름이 급속히 내려 왔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등장한 경배와 찬양 운동이나 기도운동, 문화운동, 세계선교 운동 등이 훨씬 강하게 대중적 신앙운동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토론과 강의를 주요소로 한 학구적인 방식이 주저앉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부 평가와 자성이 일어나 2000년대 초반 일명 '기독교세계관 논쟁(약칭 기세논쟁)'으로 5년 정도의 소강상태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세계관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세논쟁은 <복음과 상황> 지면에서 약 6개월간 지속되었고, 2003~4년에는 당시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 세계관동역회 전신)과 <복음과 상황>이 컨퍼런스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강일 소장의 분석(월드뷰 17년 1월호 참고)이 그때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기독교세계관 논의가 잠잠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집중 출판되었는데 생각만큼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세대적인 구조가 이미 어

긋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90년대 중반 학번 이후는 '세계관' 논의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은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세계관 담론 자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2007년의 집중적 출판에도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80~90년대 중반까지 대학을 거친 30~50대 중년층에게는 세계관 논의가 당연히 되었는데, 이후 90년대 중반 이후 학번들에게는 10년이 넘는 공백기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반 동안 한동대에서 세계관 강의를 다녔습니다.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이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 인용한 대부분의 책들을 학생들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기 전에는 보통 교수님 3명이 팀티칭으로 가르쳤는데 사 용한 책들이 대개 8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던 것에서 진전된 바 없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읽은 독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100명 정도 모인 외부 특강에서 '세계관'이란 용어나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들어봤다는 학생이 5명 안팎, 책을 읽은 학생은 1~2명에 그칩니다. 그러니 지금 청년세대는 세계관 논의에 거의 백지상태라 생각하고 강의해야 합니다. 세계관 논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분들은 중장년층을 넘어서는 세대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이강일 소장의 세계관 세대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제 구분으로는 1세대는 손봉호 교수님, 그리고 세계관동역회 임원이 2세대, 저와 이강일 소장이 3세대쯤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가 4세대인데, 세계관운동에 대한 자의식이 거의 없는 세대라 봅니다. 세계관이라는



우리의
사회적상상은
무엇인가?



개념이 파격적으로 재론되거나 재규정 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를 논의의 테이블로 초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청어람아카데미를 2005년부터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세계관 운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2000년대 초반에 기세논쟁에 이렇저러한 제안을 했던 입장이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독교지성 운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어람에서는 강좌기획을 주로 합니다. 인문학, 정치·사회, 문화·예술, 실용적 강좌 및 신학까지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는데, 넓게 보면 기독교세계관 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세계관이란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용자나 공급자 측에서 딱히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운동을 하

면서 겪었던 아쉬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을 굳이 '세계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제의식 1.

비판적 지성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학술적 기여가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지성 학술운동이라는 것이 비판적 지성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학술적 개혁이 기민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장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세계관과 관련해서 세계관 논의도 이론적인 논의에서 진보가 있는데 그걸 따라잡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쉼퍼나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

장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세계관 운동의 대표 저자 중 하나인 제임스 사이어가 칼빈대의 제임스 스미스의 논의를 끌어들이며 세계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해도 되겠다는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찰스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는데, 제임스 사이어도 ‘세계관’ 대신 ‘사회적 상상’을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쓴 제임스 사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이 흥미롭죠. 특히 『코끼리 이름 짓기』의 개정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논의를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자생적인 논의 지형이 잘 형성되거나 발전되고 있는가, 지난 2002년 기세논쟁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세논쟁 이후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보자든지, 개혁주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독교세계관 논의 초창기에 창조과학이 대중적으로 큰 비중을 가졌었는데, 흥미롭게도 세계관동역회는 최근의 창조과학 비판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굉장히 큰 이슈인데 세계관동역회가 이에 어떤 입장이며,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의식 2.

젊은 세대의 유입과 발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도 이 부분도 가장 비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 발굴, 다음세대의 세계관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말이죠. 정해진 세계관 강사, 새롭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옛날 버전의 교육이 많습니다. 게다가 좀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세계관강의나 교육이 이뤄지는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한동대는 별도의 강좌가 있지만 다른 기독교대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세계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종종 초청받아 가면 자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외부 강사에 의존합니다. 이는 세계관을 가르칠 후속세대와 관련해서 재생산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또한 이를 풀어나갈 연구와 교육의 장은 마련되어 있는가, 매거진이나 논문 등이 열려 있고, 저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과 학문〉 같은 학술지에서 다루는 주제가 현안과 관련성은 떨어지고 대신 현상 기술적이거나, 사회적 긴밀함이 없는 주제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학술논문이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 외에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만으로 기독교세계관운동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소가 젊은 세대의 질문보다는 기존 체계의 규율에 더 친화적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꾸준히 젊은 세대를 유입하려는 방안이나 노력을 확보해야 한다 봅니다. 그냥 편안한 채로 남아 있다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연구자나 강사들의 발 디딜 틈이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세계관동역회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자, 교수,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에 이 분야에 입문하였지만 불안한 상태에 있는 후배 연구자들을 견인해주시고 안정적으로 유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분명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의식 3.

실천적 기여를 해내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는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하겠습니다. 세계관 논의는 다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한 관점의 논의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끼치면 다른 후속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기업이 세금이나 납세에 있어 정직한 기업일 수 있으나, 자본이나 노동, 직업윤리 등이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생략한 채 너무 쉽게 자본주의 경영자 입장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한계가 있지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열심히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노동 없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노동윤리나 경제윤리를 과거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따라 나와야 하는데 기독교 세

계관 분야에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입장을 '기독교적 경제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후속 연구도 제한되고, 일반 담론 시장에서도 기독교적 윤리나 기독교적 경제란 이름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다른 예로 복유럽의 복지 체제에 대한 후속논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복유럽은 루터의 배경이 큼니다. 이 부분을 사회가 세속화된 결과로 가능했던 복지로 볼 것인가, 기독교적 방식이 그 사회에 깊이 녹아든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독교 세계관 영역에서도 인상 비평이나 즉흥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규명하려는 시도가 세계관동역회 같은 조직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적 정치, 기독교 경영, 법조윤리, 의료윤리, 통일, 평화, 경제, 복지, 대중문화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윤리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짚어야겠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의 보수주의적 이슈나 방식을 쫓아가는 양상도 종종 보이는데, 이것도 능사는 아니라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 시차가 크지도 않고, 이미 한국은 경쟁과 설득력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익한 케이스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스스로 지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F. 웨퍼, 찰스 콜슨, 낸시 피어시로 이어지는 기독교세계관의 논의 흐름이 미국의 기독교 우파정치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따라가는 것이 능사인 지 따져보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역회가 한국 개신교 내부 지형에서 건강성과 개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질문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세계관동역회의 조직 구성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굵은 소리하기 어려운 입장이 아닐지 싶습니다. 단체 내부적으로 윤리적 긴장을 느끼고 계실텐데,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여러 스캔들에 말려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개혁이라는 주제 앞에 세계관동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자리매김은 무엇일지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몇 단체가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그때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인 김태황 교수님이 오셔서 사회도 해주시고 짧은 발제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사한 시간이었

습니다. 학술적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해주시는 부분이 고마웠고, 그래도 동역회에 학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윤리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바로 반응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의식 4.

지식 생태계와 기독교사회 구조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지식생태계의 형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생태계를 ‘지식 생태계’, ‘교회 생태계’, ‘시민 생태계’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생태계라고 봅니다.

종교개혁 역사는 르네상스 이후 지식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만약 르네상스에 있어 지식의 혁명이나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도 굉장히 미미한 형태로 갔으리라 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제도를 바꾸고 과감한 여러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교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드는 지식 생태계나 개혁에 대한 담론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회론과 교회론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신학교가 해줄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대체로 신학교는 교단 신학 안에서 목회자 양성이란 과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요구되는 공적인 주제와 질문들이 제기되어도 신학교 안에서 굳이 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죠. 한국사회나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공공신학자(public theologian, pastor)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런 분들의 등장이 구조적으로 상당

한국사회나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공공신학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거점이 교회 바깥, 교계 밖의
지식 생태계가 감당해야 한다 싶은데,
세계관동역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 요원하기에, 저는 이 거점을 교회 바깥, 교계 바깥
의 지식 생태계가 감당해야 한다 싶고요, 세계관동역
회 같은 곳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싶은데 세계관
동역회에서는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계 중심’의 구조에서
‘기독교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고, 목사님이 대표하는 ‘교회
중심 사회(church society)’에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각 영역에 주요한 기독교 전문가들이 자기분야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안을 보고 발언하고 그것이 한
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방식으로의 ‘기독교 사회 구조
(Christian society)’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려
면 아무래도 목사에 의한 과잉 대표성이 제한되거나
해체되고, 개신교 전반에 평신도 전문가 그룹들이 전
면에 포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쓴 『독일 그리스
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만인제사장 사상을
전면에 제기하는데, 교회개혁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

신도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만인 제사장 사
상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기독교 귀족들이 교회개혁
에 전면에서 나설 수 있도록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는 한국에서도 아마 유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개혁이나 혹은 개신
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할 역할에서 전면으로 등
장하는 일이 필요하고, 과잉된 목회자 대표성을 제한
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이라고
독일여행을 많이들 계획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봅니다. 여행 잘하고 잘 배우는 것 이상으로 개신교의
얼굴을 좀 바꾸고, 한국 개신교의 대표성을 늘 등장하
는 얼굴이 아닌, 평신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 연구가 필요
하겠습디만, 향후 1~2년 안에 이 작업을 할 수 있
다면 가장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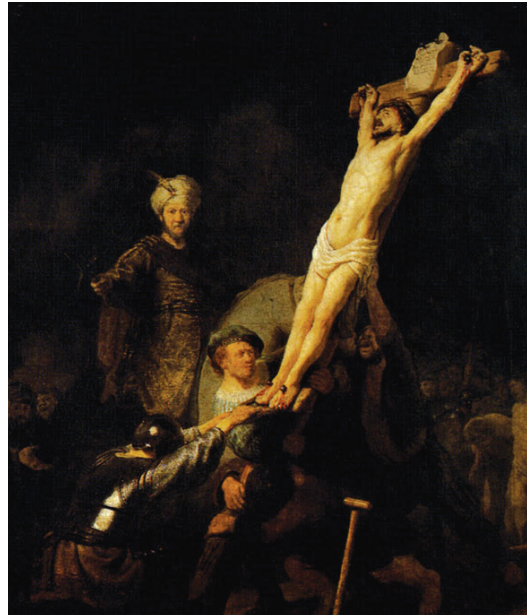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한 사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장례’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죽음과 장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도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면 더욱 큰 유익을 얻는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주일에서는 사도신경 네 번째 항목 중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말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가르친다. 먼저 40문에서는 그 분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41문에서는 장사되심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후, 42문과 43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우리의 죽음과 현재 생활에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각각 말하고, 44문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40문)

40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렘브란트 작, 1633년 경)

습니까?” 하고 묻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고 답한다. 우리의 죄값을 아드님에게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이미 제5-6주일에 배웠지만, 40문에서는 ‘공의’만이 아니라 ‘진리’를 덧붙여서 말한다. 대속의 죽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에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셨다.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마 26:53-54) 하시면서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의미 (41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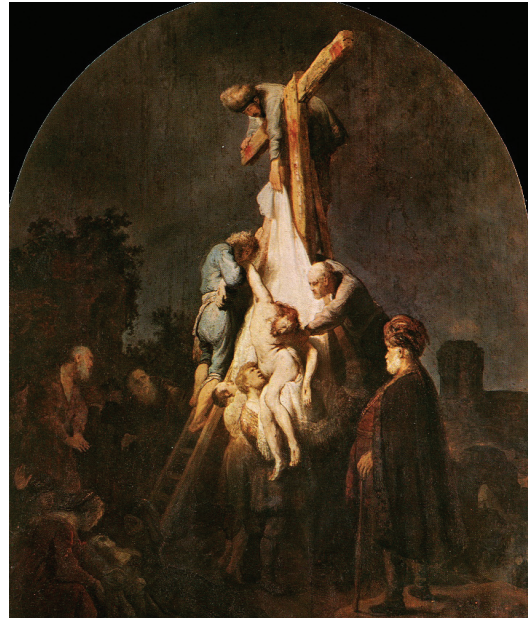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장사되는 것은 죽음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관에 있을 때에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만, 땅에 묻히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래서 시신이 땅에 묻힐 때에 유족들은 더 큰 슬픔을 느끼고 오열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이다.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 근쯤을 가지고 고귀한 장례를 치렀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다. 이것으로써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사 53:9).

예수님의 죽으심은 원수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의 죽으심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인봉할 것을 요구했으며,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그 무덤을 인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렘브란트 작, 1633년 경)

것도 공적(公的)으로 정죄된 일인 것처럼, 그분의 무덤에는 빌라도의 인(印)이 있어서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을 쳤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신자가 죽을 때에 받는 유익 (42문)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2문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지닌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 질문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이 온전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42문은 세 가지로 가르친다.

첫째, 신자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나의 죽음으로 죄값을 얼마라도 갚는 것이 아니다.

둘째, 요리문답에서는 신자가 죽음으로써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된다고 고백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구절이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신자의 삶은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계속 싸우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그 싸움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백한다. 여기에는 죄와 싸우는 신자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날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누우면서 동시에 새날을 소망한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신자의 죽음을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자는 것이다.



무덤에 안치되는 예수님(렘브란트 작, 1633년 경)

셋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효를 덧입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죽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다. 거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다. 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낙원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곳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비난하던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가 죽은 후에 음부가 아닌 낙원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시고서 친히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심에서 받는 또 다른 유익: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 (43문)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음심의 공효(功效)로¹⁾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所欲)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말미암은 유익은 신자가 죽은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1) 죄책이 면제되고, (2)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또한 (3)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라틴어 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이지만 독일어 판은 “그분의 능력(Kraft)으로”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심의 공효”라고 번역함으로써 두 판본의 뜻을 모두 살렸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거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심의 ‘공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가지 주제와 비슷하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이처럼 신자의 삶 전체에 유익을 준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44문)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은 주후 약 390년경으로 추정되는 소위 「아퀼레이안 고백서」(the Aquileian Form)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도신경 공인본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구절이다. 번역자가 분명하지 않은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 본문에는 판본에 따라 이 구절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빠져 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음부’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음부는 단순히 죽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고통을 당하는 곳이었다(눅 16:23). 둘째로 음부는 무덤, 혹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가리킨다(창 42:38; 시 16:10). 이 경우에 ‘음부’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와 밀접히 연결되어 사용되었다(계 1:18). 셋째, 음부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시편의 시인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시 18:5-6) 하고 말하거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시 116:3)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음부의 고통은 실제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떠올릴 만한 큰 고통을 의미한다.

‘음부’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에 대한 이해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로마 교회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목적을 지옥의 변방(limbus patrum, 선조 림보)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²⁾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에 낙원으로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눅 23:43), 또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고서 운명하셨다(눅 23:46).

둘째는 이 구절을 ‘무덤에 묻히신 일’로 이해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0문이 이러한 해석을 취한다.

2.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들이 산다고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곳으로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다. 로마 교회에서는 또한 지옥의 가장자리에 ‘유아 림보’(limbus infantum)도 있고, 거기에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있다고 가르친다.

50문: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묻히신 것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세력 아래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표현을 무덤에 묻히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장사되셨다’는 말에도 무덤에 묻히셨다는 뜻이 이미 포함되는데, 짧은 사도신경에서 동어반복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된다.³⁾

셋째,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전통에 서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특히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며(마 26:37),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 막 14:34) 하고 말씀하셨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고난과 진노의 의미를 바르게 아셨던 주님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난을 겪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 신비함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도 사실이다.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요약한다.

만일 누구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조문을 사도신경에 포함시키는 데 여전히 주저한다면, 이 조문이 우리의 구속의 요약에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제외될 경우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택의 대부분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칼빈, 『기독교강요』, 2권 16장 8절

3. 칼빈, 『기독교강요』, 2권 16장 8절.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p. 229.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Recommend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지음 | 폴빛

태초에 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이 발전하게 되는 역사적 경로를 차근차근히 밝아 나갑니다.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 정의관 및 헌법정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반영하는 정의로운 법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나 동일하지만, 각 사회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다르기에 상이한 정의관을 비교 분석하며, 정의와 연관시켜 각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정신이 담고 있는 기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와 함께 식탁에 앉는 ‘법’

대학 시절, 내 주식은 햄버거였다. 한창 많이 먹을 때는 내 몸의 원산지가 맥도날드라고 해도 될 정도였으니까. 반면, 같이 밥을 먹던 동기는 식사 때 밥이 없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조선 시대 위장을 가진 정통 밥파였다. 때문에 점심 메뉴를 정하기 위한 신경전은 항상 치열했다. 아침에 처음 만나자마자 새로 생긴 밥집 이모가 국밥을 어찌나 잘 마는지 고조 할머니께서 고종 임금님 주방 상궁이셨을 거라는 등, 버거킹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패티를 얼마나 잘 굽는지 햄버거 패티 굽기 자격증이 있을 거라는 등 실없는 소리가 인사 대신이었다.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 식성이 다 제각각이었다. 모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언제나 가장 무난한 백반집이 정해졌으니, 동기 녀석만 싱글병글 할 일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을 먹는지 정할 때 벌어지는 사단과 비슷하겠다. 혼자서만 한다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다같이 하려고 했을 때 불만이 나온다는 점에서 특히 비슷하다. 김영란 교수는 말한다. 불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만의 표출은 결국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제정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 서로 뭉쳐야 하는데, 뭉쳤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의 아이러니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존중하거나, 군림하거나.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언제나 군림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일은 꼭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keyword

김영란 | 법 | 정의 | 법치주의 | 민주주의 | 다름 | 존중

Thanks Book

땡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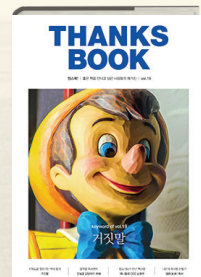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진화, 타락, 구속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연대의 문제에 있지 않다. 창조론 안에서도 오랜지구와 짧은지구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과 종사이의 대진화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창조론은 창세기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38, 39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종 내에서의 변이(소진화)는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인만큼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두 이론 모두 당연히 인정한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황인,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도 일종의 종내의 변이인 것이다. 문제는 그 변종들이 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종으로 변할 수 있느냐 즉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그동안 다양한 창조론이 있었고 또 다양한 진화론도 있었지만, 양승훈 교수가 창조론 대강좌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종과 종사이의 진화, 즉 대진화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

지난 11월 5일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에 그동안 공공연하게 창조과학을 비판하며 진화를 과학

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초대되어 유신론적 진화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그 글이 월드뷰 1월에 긴 지면에 걸쳐 소개되었다.

그의 글에는 진화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되지만, 그가 주장하는 창조의 내용은 진화론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그의 글에는 창조를 인과적 창조와 즉각적 창조로 나누었다. 그의 글에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창조론의 창조를 즉각적 창조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화석과 유사성을 통해 밝혀진 대로 공통조상으로부터 현재 생물의 종들이 진화했다는 생물의 연속성”을 가진 것을 인과적 창조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관계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의미의 인과적 창조는 진화라는 말의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창조, 지구와 태양계의 창조, 지표면의 다양한 지질현상의 창조, 그리고 생물들의 창조까지 창조의 창조과정은 동적과정이었으며 인과적 창조였다.”라고 그의 글은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변이처럼 종내의 변이는 인과적 창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관계를 통해 나왔다는 주장조차 인과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진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과학을 위한

사실적 정보의 원천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다른 동물과는 구별하여 독립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의 글에는 “창조주의 창조과정은 긴 시간적 흐름을 통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 창조이며 자연세계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사용하여 창조하는 인과적 창조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어, 결국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화, 타락, 구속

그의 주장에 대하여 과학적인 관점을 포함해서 여러 관점에서 반박할 내용이 많겠지만, 우선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자들도 가장 싫어하는 이론이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의 개념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장 심각한 점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대로 인간이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과정을 통해 진화된 것이라면 원죄의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어느 단계의 유인원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 아니면 크로마뇽인인가?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의 과정이고,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탄생했다면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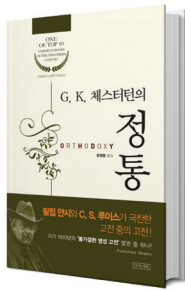
그의 주장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진화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성경의 창조는 진화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성인 창조-타락-구속은 진화-타락-구속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세속화의 흐름

작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의 주요 교단과 1,900여명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에 연서한 명단만 116페이지나 되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교회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지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미국교회내 이런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닐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 등을 지지하는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5일 학술대회의 기조강연과 월드뷰 1월호의 글에서 진화란 말 대신에 인과적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진화였다. 왜 발표자는 자신의 주장을 진화론이라고 뽐뽐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화의 흐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 본 칼럼은 세계관동역회 회원의 기고로 구성됩니다.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답습니다.



G.K. 체스터턴 / 홍병룡 /
아바서원

오늘날 신앙의 정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참된 생명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러한 모순에 빠진다. 체스터턴은 현대 사조와 자유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현대 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은 바로 기독교이다. 현대 사조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성의 위험 그리고 진리

체스터턴은 과도하게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머리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물론이다. 그리고 진화론은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만든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고 존재란 없다. 존재할 수 없기에 생각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삶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삶이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다. 체스터턴은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다. 체스터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세계를 그 자신에게서 분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자유사상의 위험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한다. 자유사상은 자유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박을 강화한다.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그것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다. 참된 자유의 열쇠는 하나님의 창조이다.

둘째,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림을 감당하신 하나님이다. 체스터턴은 유일한 용기는 영혼이 한 계점을 지나고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용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

셋째, 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 읽어야 한다. 체스터턴은 원죄 교리를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원죄 교리를 통해 왕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거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재물, 권력, 아름다운 외모를 “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졌기에 타락할 수 있다. 원죄 교리를 통해 자신을 신뢰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책 속의 한 줄

이방사상은 대칭으로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선 대리석 기둥과 같았다. 기독교는 주춧대를 건드리면 흔들거리면서도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천년 동안 보좌에 놓여 있었던,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낭만적인 바위와 같았다. (p.227)



아더 핑크 지음 / 정시용 옮김 /
프리스브러리

책을 만난 그 날, 고적거린 메모는 이랬다. “10년 된 크리스천, 지난 삶은 이해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도 참 못났다. 멍멍하고 답답하다. ‘제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요?’” 그런 내게 저자는 감성적이나 훈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높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 기도를 바꾼 ‘바른 위로’가 되었다.

위로 하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안내

죽음을 앞두고 위로에 관한 설교를 모아 책을 펴낸 저자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유업으로 택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풍성히 채울 그릇으로 소유하셨고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분의 징계는 재판관이 아닌 아버지로서 내리는 자녀 훈육’이다. 고난을 겪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만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하신다. ‘장차 임할 영원한 시대에 우리 안에 충만할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이 가볍고 순간적임을 깨닫게’하신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황금빛 영혼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우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

동시에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성도의 삶’으로 안내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 자체가 부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격려한다. 인생은 난해한 수수께끼이고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예로 들며, 시련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경험이며, 거듭난 자의 심령은 주리고 목마른 법이라고 위로한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품은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낳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세상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지금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그런 성도의 삶은 죽음까지도 두려움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위로 받다 : 함께 길을 걸으며 위로자가 되고 싶은 용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설명하며 성도의 삶을 안내해 준 그의 위로는, 자기 중심성의 좁은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위에서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 고난과 의심을 품고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 하겠습니다.’ 내게 용기를 준 이 책의 일독을 여러분께도 권한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 정다운 /
비아 출판

얼마 전 한 인기 철학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대학로에 있는 강연장에 갔을 때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이미 2시간 전부터 와서 자리를 꽉 채우고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것이다. 교회 예배 시간도 종종 지각하는 나로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50년 전 즈음엔 사람들이 목사 주변에 이렇게 모였을텐데, 시대가 변했구나...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걸까?...인문학과 과학과 심리학이 오히려 더 현대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로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더 이상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걸까?...”

잃어버리다

교회 안에 청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얼핏 보면 그저 과거 화려했던 교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노인들만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앙의 언어를 피한다. 화려한 무대와 음악과 세련된 설교자의 연변과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대신하려 한다. 그런 방식이 순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다.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언어가 재현하는 실재도 함께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교회는 ‘죄’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진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위로를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인문학 강의 열풍 현상과 심리학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풍조를 잘 보여준다.

다시 찾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 브라운의 책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는 ‘죄’, ‘회개’, ‘구원’이라는 단어가 결코 대체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개인의 실존적인 불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나 인문학 용어로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의 상태를 “나 지금 우울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려 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아픔을 ‘죄’라고 부르기를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그 순간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에 급진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책 속의 한 줄

우리 내면에는 텅 빈 곳(공허)이 있으며 이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

우리가 이 텅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비어있음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p.227)

사랑학교

고뇌와 연민으로
배격거리는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연애학교」 「부부학교」 「부모학교」를 이은
게리 토마스의 대표작

게리 토마스

윤종석 옮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
평생을 사랑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부부에게는 사랑으로 삶을 지탱해내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신국번형판 | 372쪽 | 값 15,000원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CUP www.cupbooks.com

CUP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6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2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744,000
	임원회비	36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6,495,000		소계	3,744,000
	기관후원금	4,9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59,500		사무실관리비	455,200
	CTC후원금	90,000		통신비	133,350
	학술지원금	1,000,000		소모품비	65,550
	VIEW후원금	600,000		식비	361,530
	기타후원금	0		복리후생비	875,420
				퇴직연금	321,290
				회의비	95,100
				교육비	51,300
				우편료	12,0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99,593
기타수입	소계	17,454,500		소계	3,495,333
	CUP매각금(분납)	400,00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89,450
	결산이자	22,572		VIEW후원금	200,000
	예수금	346,79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769,362		소계	1,289,4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3,55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세계관기타수입	0		발송비	388,700
	소계	3,550,000		소계	2,888,7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기타	세금	36,200
	학술지심사비	70,000		기타	10,000
	학회지게재료	3,234,500		소계	46,200
	학회기타수입	6,000,0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563,920
	소계	9,404,500		세계관기타	500,000
학회				소계	1,063,92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홍보및기타	0
				학회기타	245,300
				소계	245,300
당월 수입액		31,178,362	당월 지출액		12,772,903
전월 이월액		53,822,083	차월 이월액		72,227,542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6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0
				기타급여	0
				소계	1,968,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22,000
기타수입	소계	1,100,000		인쇄비	2,669,425
	월드뷰판매비	2,500,000		기타제작비	120,000
	이자수입	7,690		소계	4,371,425
	기타수입	10,140	경상비	복리후생비	317,330
	예수금	15,180		관리비	110,000
	소계	2,533,010		회계용역비	110,000
당월 수입액		3,633,010		회의비	119,000
전월 이월액		31,215,059		소계	656,330
			당월 지출액		5,027,755
			차월 이월액		29,820,314

※ (주) 세상바로보기는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6년 12월 31일 마감)
Date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희, 김봉현, 김삿별, 김삿별, 김성욱, 김명주, 김정원, 김창수,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해일, 생명여강, 손영일, 송지수,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 정, 이승찬, 이철민, 장재수, 전은경,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강대용,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실, 김재우, 김태영, 김향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균, 박승훈, 박천규, 박현빈, 범경철, 손세운, 손영경,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유종열, 윤경숙, 유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인수, 이종혁, 이항수, 이호진,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황기희 **7천5백** 강찬진, 김나실, 김동현, 김성욱, 김재우, 방선기, 엄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은순, 전보규,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용재, 고재호,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선영,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고운,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기현, 김기홍, 김남진, 김동찬,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병철, 김보경, 김봉래, 김봉수, 김상범,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영, 김세연, 김세종, 김소라, 김수홍, 김승준,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용석, 김원근,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중원,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근, 김지민, 김진규,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판익, 김 혁, 김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섭, 김홍철, 김효석, 김효숙, 김희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남선우, 노아름,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름, 문재환, 문진성, 민신기,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만준, 박복배,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은, 박용성, 박원근, 박유근, 박은주,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현경, 박형준,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아름, 배인교, 배지연, 배호진,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소종화, 소진희, 손영규, 손하은, 손한나,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선영, 신성자, 신승훈, 신자영, 신진선,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신희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동석, 안병열, 안석, 안영혁, 안영환, 안용준,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인, 오성호,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현동, 유화원, 윤경수, 윤명섭,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 강, 이경연, 이경직, 이계섭, 이관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노윤, 이덕영, 이동훈, 이명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선, 이선복, 이선혜, 이성미, 이성수, 이성일,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요한, 이윤훈,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준섭,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철길, 이충원, 이혜리, 이형로, 이형진,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상필, 임소현, 임수복,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섭, 임준택, 장경진, 장성호, 장슬기, 장승재, 장승하, 장옥경, 장용훈,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영희, 전성수, 전준하, 황기철, 황도윤, 황상준,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1천** 장현정 **1만5천** 강승모, 고상섭,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최동원, 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경화, 김세광, 김용석, 김인숙, 김정호, 김자하, 노용환, 배성민, 빛과소금교회, 석지원, 신태학, 오지희,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민아, 정문선, 조승희, 조창근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송태현, 오익석, 오한나, 우병훈, 이수형, 이은실, 임현영,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이종달 **4만2천** 이원석 **5만** 김성락, 김성민, 김익원, 박문식, 서진희,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서, 현은자 **6만** 이종철,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8만** 권정아 **10만**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원철, 전광식 **20만** 채기현 **30만** 김승욱, 홍승익 **31만** 이경숙 **65만** 김민철 **240만** 무명

계 11,504,5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세연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안약교회, 예심교회, 주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현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제자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9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고신대학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2017년 함께할 세계관동역회 임원입니다.

*** **이사회** *** **이사장**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 김의원 (총신대 前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 송인규 (IVP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홍명식 (사까나야 대표)*

감사 | 박문식 (한남대 교수)

*** **실행위원회** *** **위원장** | 김태항 (명지대 교수)

실행위원 |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 (명지대 교수)* 문준호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이재희 (가천대 교수)*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연구본부** *** **연구본부장**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학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 문석운 (경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 이호선 (국민대 교수)* **연구윤리위원장** | 문석운 (경희대 교수)* **부연구윤리위원장** | 이호선(국민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총무** | 이상무 (평택대 교수)* **감사** | 류현모 (서울대 교수)*, 임춘택 (경남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안 (서강대 교수) 권태경 (총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홍섭 (인천대 교수)* 박신현 (고신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서성록 (안동대 교수)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양성만 (우석대 교수) 윤원철 (카이스트 교수)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조무성 (고려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황호찬 (세종대 교수) **분과장** | **경제/경영 분과장** | 이대식 (부산대 교수)* **교육 분과장** | 김보경 (전주대 교수)* **문화/예술 분과장** | 서성록 (안동대 교수) **법학 분과장** | 조영길 (법무법인I&S 대표) **사회복지 분과장** | 이상무 (평택대 교수) **상담/심리 분과장** | 전요섭 (성결대 교수) **역사 분과장** | 권태경 (총신대 교수) **의료보건 분과장** | 김지원 (백석대 교수) **융합 분과장** | 이우성 (STEP1) **철학 분과장** | 양성만 (우석대 교수) **공연예술 분과장** | 박순자 (숙명여대 교수)*

편집위원장 | 손병덕 (총신대 교수)* **편집위원** | 김철수 (조선대 교수)* 손창민 (부산대 교수)* 방명애 (우석대 교수)* 우종학 (서울대 교수)* 이경직 (백석대 교수)* 이상무 (평택대 교수)* 현은자 (성균관대 교수) 현창기 (한동대 교수)* Paul Lim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Sungmin Chun (캐나다, VIEW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장 | 조성표 (경북대 교수) **연구원** | 성현창 (백석대 연구교수)

*** **운동본부** *** **본부장** | 박동열 (서울대 교수)

중국사역위원회 | 정수균 (선교사) **지역관리위원회** | 박신현 (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회** | 최용준 (한동대 교수) **언론위원회** | 강진구 (고신대 교수)

*** **교육본부** *** **본부장** | 김지원 (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 (총신대 교수)

교재개발위원회 위원장 | 최태연 (백석대 교수)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효영* **팀장** | 김고운* **간사** | 고한빛

*은 변경 및 신규 임원입니다.

※ 산하기관 및 협력기관의 임원명단은 지면의 한계로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 *

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2/9(목)~11(토) 기독교세계관학교 후속회의(라브리, 양양)

2/18(토) 월드뷰 북에세이팀 모임

2/25(토)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2/27(월) 월드뷰 3월호 발행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임무는 철저히 세속화된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지성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과 학문활동을 이끌어 가며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국 교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문, 교육, 경제, 정치, 예술,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 우주와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는 결코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따로 수행하기 어렵고
한 두 사람의 재능과 열심만으로 이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바쳐보려는 선한 마음들이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종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더욱 설득력 있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장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후원회원으로 가입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QR 코드로
바로 가입하러가기